

본당 소식

♣ 연중 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고독과 죽음의 고통을 겪는 노인들을 위로하고, 신앙의 전수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며 그들의 소명을 격려하고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다. 한국 교회는 보편 교회와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7월 26일)과 가까운 7월 넷째 주일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지낸다(주교회의 2021년 추계 정기 총회 결정).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 비유 말씀을 듣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얻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듯이,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언제나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복음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 7,8월 휴가철 관계로 각종 회의 및 모임은 없습니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28.30€ • 교무금 000.00€

전례 성가

입당 : 25 (사랑의 하느님)

봉헌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체 :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498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 : 6 (찬미노래 부르며)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7월 26일

(녹)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본기도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 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1독서 (열왕기 상권 3,5-6ㄱ.7-12)

그 무렵 5 주님께서 한밤중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7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디만,

저는 어린아이에게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8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9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10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11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네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28-30)

형제 여러분, 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29 하느님께서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30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오 13,44-52)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44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47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48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49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51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5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몸소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주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살피시어,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며 바르게 판단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3.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사회의 어른인 노인들을 굽어살피시어, 그들이 신체적인 불편과 정신적인 고독으로 삶의 기쁨과 힘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4.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하여 힘쓰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근원이신 주님, 젊은이들에게 인내와 지혜를 주시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하시고, 소외와 배척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수난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